



셀레늄 사슴 사육 성공

- 셀레늄은 암 예방·노화방지에 좋아, 기능성 녹육 관심 증가 -

암 예방과 노화방지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셀레늄을 사슴에게 먹인 '셀레늄 사슴'이 탄생했다.

강원도 양구군은 일반사료에 천연 셀레늄과 당귀, 육모초 등 10여 종류의 한방사료를 사슴에게 급여하는 시범 사육을 실시, 일반 사슴보다 DHA 성분 비율과 셀레늄이 월등히 높은 사슴을 만들어냈다.

셀레늄 사슴을 분석한 결과 DHA성분 비율이 0.14%로 일반 사슴보다 배이상, 셀레늄 함량도 27ppb나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인체에 유효한 성분 외에도 고기로서의 맛도 뛰어난 것으로 평가받아 향후 기능성 식품으로의 발전 가능성도 뛰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같은 내용은 뉴스 전문방송인 YTN에 보도되기도 했다.

△ 다음은 YTN에 소개된 셀레늄 사슴 보도 내용

앵커 : 셀레늄은 암 예방과 노화 방지 등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셀레늄을 먹여서 기른 사슴과 토끼가 강원도 양구에서 첫 선을 보여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홍영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 강원도 양구지역의 한 셀레늄 토끼 사육장입니다. 일반 사료에 천연 셀레늄과 당귀, 육모초 등 10여 종류의 한약재를 섞어 만든 한방사료를 먹고 자란 셀레늄 토끼가, 최근 기능성 건강식품으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이처럼

셀레늄 토끼가 좋은 반응을 보이자, 또 다시 셀레늄 사슴 시범사육에 나선 양구군. 지난해 예산지원을 받은 한 농가가 한방사료를 먹인지 3개월만에 셀레늄 사슴 사육에 성공했습니다. 불포화지방산 가운데 DHA성분 비율이 0.14%로, 일반 사슴보다 무려 배이상 증가했고, 셀레늄 함량도 27ppb나 더 늘었습니다.

조현구 [사육농가] : 일반 사슴에도 셀레늄 성분이 있는데 한방사료를 먹임으로써 셀레늄 성분을 증가시켜서 고가로 만들 수 있어 셀레늄 사슴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기자 : 이같은 셀레늄 사슴과 토끼고기를 이용한 새로운 음식이 개발돼 첫선을 보였습니다. 양구군이 개발한 음식은, 불고기와 전골, 스테이크 등 모두 7가지. 특히 셀레늄 사슴과 토끼고기는, 암예방과 노화억제 등에 탁월한 효능이 있는 데다, 담백하고 냄새가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귀행 [주방장] : 상당히 육질이 부드럽고 냄새도 없고 앞으로 조리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임경순 [양구군수] : 셀레늄을 첨가해서 개발한 한방사료로 키운 셀레늄 토끼와 사슴을 명품화해서 주민소득을 높일수 있도록 가꿔 나겠습니다.

기자 : 양구군은 이처럼 셀레늄 토끼가 인기를 얻자, 일반 닭과 소, 돼지 등에도 셀레늄이 함유된 한방사료를 먹여 사육하기로 하는 등 대상 가축을 늘려 나갈 계획입니다. **한국양육**